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2012년 8월부터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조사기법을 이용한 『아산 데일리 폴 (The Asan Daily Poll)』을 시작했다. 『아산 데일리 폴』은 매일 국가/개인 경제상황, 국가안보, 기타 사회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이다. 아래는 2013년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의 조사결과이다.

4월 1·2주차 주요 조사결과

- ✧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되며 올해 들어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최고조로 상승
- ✧ 우리 국민 열 명중 일곱 명은 국가안보 불안 느낌
- ✧ 북한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평가(긍정): 우리나라 49.9%, 미국 56.1%, 중국 37.1%
- ✧ 한국인의 국가 호감도 순위: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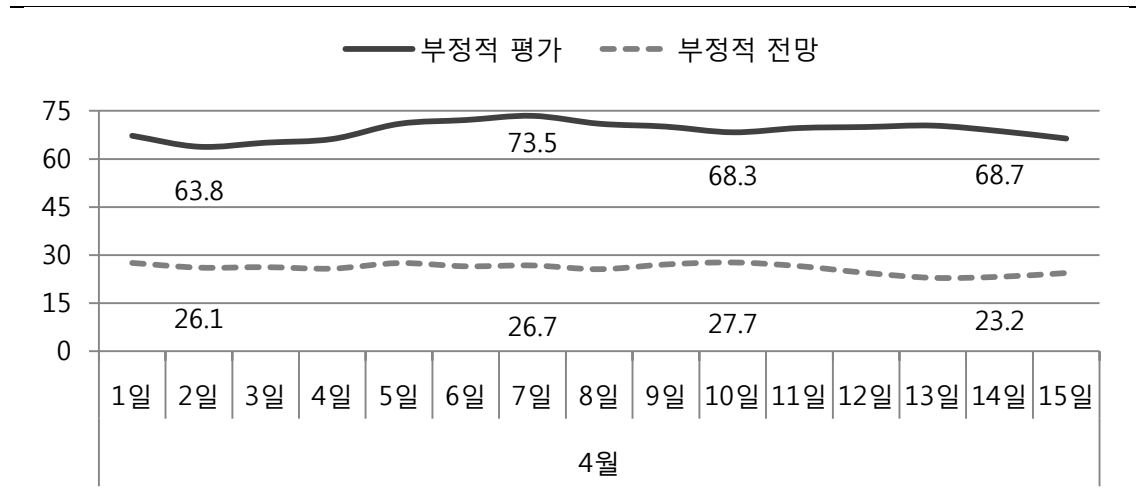
4월 1·2주차 주요이슈

- ✧ 4월 1일 민주당 이동섭 위원장, 노원병 불출마 선언 및 안철수 후보 지지 표명
- ✧ 4월 2일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표명
- ✧ 4월 3일 북한, 개성공단 출입 금지 남쪽 귀환만 허용
- ✧ 4월 4일 북한, 중거리미사일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
북한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당해 회원명단 공개 됨
- ✧ 4월 5일 북한, 평양주재 외교단 철수 권고
- ✧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북한 근로자 철수
- ✧ 4월 9일 북한, 남한 내 외국인 대피 대책 세워야 할 것이라고 공세 펼침
- ✧ 4월 11일 박 대통령, 북한에 대화 제의
- ✧ 4월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북한에 대화 원한다고 밝힘
- ✧ 4월 15일 김일성 생일
- ✧ 4월 9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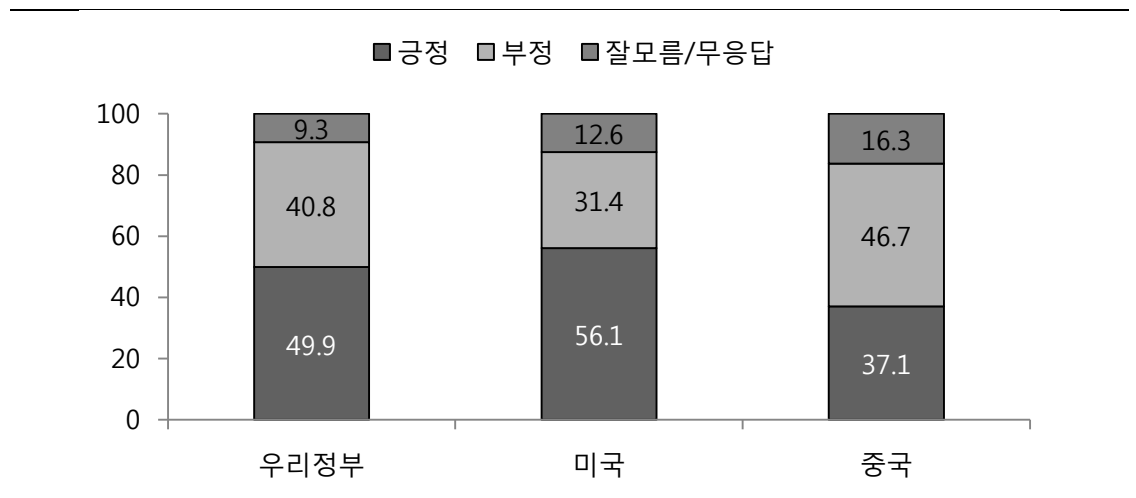
■ 국가안보 평가 및 전망

지난 3월 말¹에 비해 4월 초 안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소폭 줄었다.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자, 안보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월 7일 을 들어 최고치인 73.5%까지 상승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4/12) 이후 양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한국인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전히 60%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 평가 (4/8~4/10)

우리 국민의 과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 두 국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가가 엇갈렸다. 56.1%의 응답자가 미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본 반면,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¹ 3월 27일에서 31일까지 국가안보 부정적평가 평균치는 66.7%였다(데일리폴 주간 조사결과 요약 3월 3-4주차 참고).



■ 국제관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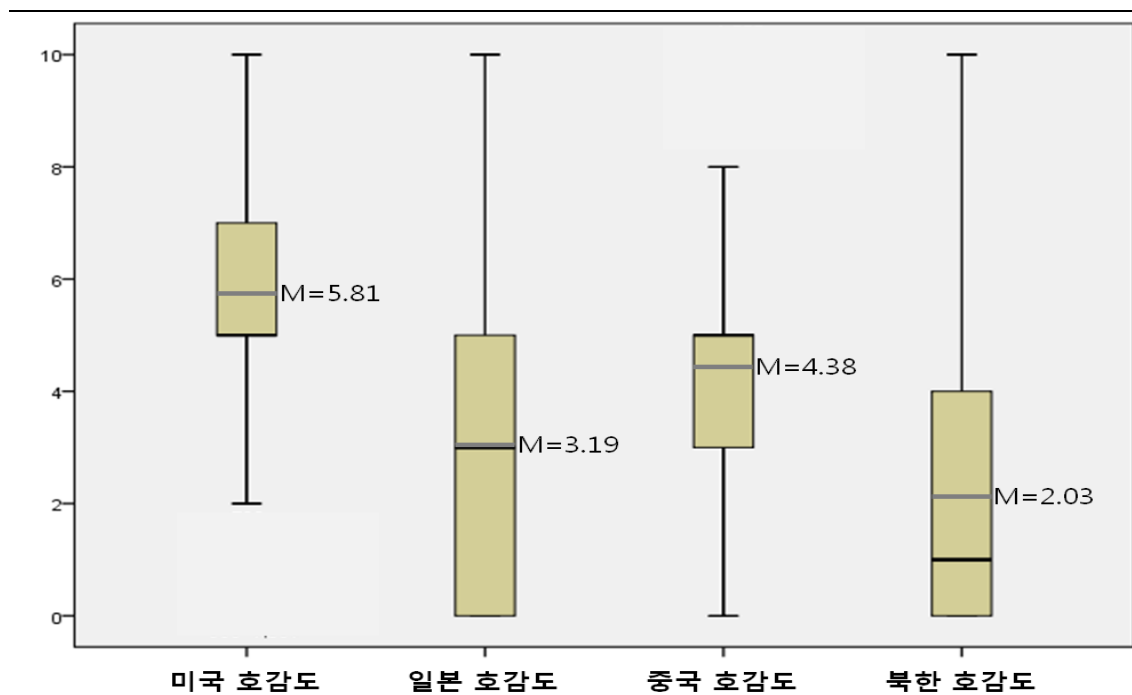
최근 우리국민의 미·중 관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일주일 사이 13.2% 늘었다.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공조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작년 한국인은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미·중은 경쟁관계이다 81.2%) 중인 것으로 봤다.²

구분	4/8~4/10			3/30~4/1			증감	
	경쟁	협력	모름/무응답	경쟁	협력	모름/무응답	경쟁	협력
미·중	52.0	38.5	9.5	65.2	25.4	9.4	▽ 13.2	△ 13.1
한·미	12.3	81.1	6.6	9.1	84.3	6.6	△ 3.2	▽ 3.1
한·일	65.6	27.5	6.9	68.9	23.9	7.2	▽ 3.2	△ 3.6
한·중	44.2	47.6	8.2	41.3	51.3	7.4	△ 2.9	▽ 3.7

■ 국가 호감도

-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분포 (3/30~4/01)

주요 주변국에 대해 '0점 전혀 좋아하지 않음', '5점 보통', '10점 매우 좋아함으로' 11점 척도를 사용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꼽았다. 각 국에 대한 호감도 분포는 아래와 같다.



² 2012년 아산연례조사 (n=1,500, 조사기간: 2012년 9월 25일~11월 1일, 조사방법: 패널구축 + 참여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 +/-2.5%)



- 국가 호감도 변화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호감도(평균)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급격한 호감도 하락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3.19점으로 일본보다 높았지만, 올 초에는 2.99점으로 하락하며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및 위협이 계속되자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4월 초 2.03점으로 나타나며 지난해보다 1.16점 하락했다. 일본은 작년부터 독도 및 위안부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이어오며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더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주목 받으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12 년	2013 년	
	8/14~8/16	1/3~1/5	3/30~4/1
미국	5.55	5.70	5.81
일본	2.93	3.31	3.19
중국	3.97	4.45	4.38
북한	<u>3.19</u>	<u>2.99</u>	<u>2.03</u>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 ◆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